

### 3/15(화) 사사기 19-21장 소견대로 사는 삶의 최후

영적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동반합니다.

17-21장은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

집단의 종체적 타락과(지파, 이스라엘 전체) 모두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경계했던 모든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우상과 산당을 소유하며 제사장을 고용합니다(17장).

제사장이 세워지는 데 지파, 나이, 조건과 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은 생존과 안위에 급급합니다.

생계를 걱정하며 세상을 헤매고, 고용과 스카우트에 움직입니다(18:19-20).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에는 듣기 좋은 말로 응대합니다(18:10).

지파의 땅 정복은 죄로 점철됩니다(18장).

동족이라고 일부러 찾아간 마을은 남보다 못하고(19:11-12),

남편인 레위인은 자기 여인에게 무심하고 냉정합니다(19:27-29).

웬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결국 <내전>입니다(20:1-2).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서툴고, 강구한 방안은 살인, 납치, 강간입니다(20:17-21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옮은대로 행하였더라.”

(17:6, 18:1, 19:1, 25:25)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영, 혼, 몸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3:1-5)

내 소견대로 살아갑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❶ 나는 <하나님화> 시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나안화> 되고 있습니까?

❷ 나에게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둘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사사기 19-21장